

#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re Competencies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jors of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A-University

백상현 (Sang Hyon Baek)\*\*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Christian university freshman's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ir majors and gend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ed 940 students in A university, and assessed their core competencies by using the results of the 2019 core competences assessment, which was developed by A university. Also, it utilized MANOVA and Post-hoc tes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of the freshmen's core competencies based on their backgrounds of their majors and gende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morality and ethicality, foreign language ability, convergent thinking ability competencies show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gender, and sharing and consideration, conflict resolu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ogical thinking ability competencies showed differences based on their majors.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part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ir majors and gender with respect to responsibility, morality and ethicality, conflict resolution, autonomous leadership competency. In particular, the female student showed higher core competenc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fields whereas male students showed higher core competencies in art and physical Education field.

**Key words :** Christian University,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re Competency, University Freshmen

\* 2020년 05월 11일 접수, 06월 15일 최종수정, 06월 16일 게재확정

\*\* 고려대학교(Korea University), 교육학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jaws38@naver.com.

##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대학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역량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동안 고등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개념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재생산하여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윤회정·방담이, 2015: 2) 역량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왔다. 역량중심 교육에서는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수행, 태도 등과 같은 역량을 학습성과로서 강조하고 있다(이민정·김수동, 2018: 760). 이렇게 고등교육에서 핵심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짐과 동시에, 국내 대학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OECD의 AHELO, 미국의 CLA, 호주의 GSA 등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대학생 핵심역량진단(K-CESA)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황지원 외, 2017: 107). 또한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목표와 맥락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자체 핵심역량진단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졸업 시까지 이러한 핵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개편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김혜영·이수정, 2013; 윤지영·유영립, 2018; 이미라·김누리, 2018; 진미석 외, 2011) 또는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이병식·최정운, 2008; 남창우 외, 2016; 리상섭, 2014; 백평구, 2013; 손유미·백영은, 2017; 조명희·이현우, 2014)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개편과 변화에 있어서 기독교대학도 예외가 아니기에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반영한 교육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2-3). 기독교대학은 모든 학문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기독교적 교육과정, 면학분위기 및 기독교문화 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박은숙, 2013: 248-249). 따라서 기독교대학에서 역량을 말할 때는 기독교적 관점을 수용하여(장화선, 2015: 113) 영성 및 신앙적 역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최근 국내 기독교대학도 자체적으로 기독교적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 대학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시스템이 도입되어 학습과정과 교육성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고 있으며(배상훈·윤수경, 2016), 역량 측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입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원하는 핵심역량과 교육프로그램을 맵핑하고 계획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과 목적을 반영하면서 최근 강조되는 역량기반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독교대학의 경우에도 소속대학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반대학에 비해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수자의 핵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략(박은숙, 2013),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수용에 관한 논의(장화선, 2015), 그리고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사례연구(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재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요구도 조사(이수인, 2018)등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독교대학의 역량 기반 교육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소속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핵심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편, 핵심역량은 교육 및 학업 활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산물로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성장해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다(정주영, 2018).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이 대학환경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별, 인종, 전공계열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Braxton et al., 1997; Roberts & Robins, 2004, Holland, 1997). Hall & Sandler(1982)은 대학 내에서 학생이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경우 소속 대학환경을 비우호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Holland(1997)는 각 대학생의 유형에 적합한 전공(major)이 존재하며, 학생 개인이 소속 전공을 얼마나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학생의 발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변수연(2019)이 신입생의 대학경험에 대한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습참여 및 소속감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한송이(2016)의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학에 긍정적인 인식과 애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수업방식(손연아 외, 2018), 학습성과(정주영, 2018)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공계열과 성별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한 공대 여학생의 전공 관련 심리적 특성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도 있다(정윤경 외, 2008; 곽은주·배상훈, 2019). 특히, 무엇보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의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성별

과 전공계열에 따른 영향의 차이(배상훈·한송이, 2015; 한안나, 2017; Posner & Vandell, 1999)가 나타난 점으로 보았을 때, 핵심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개인이 전공별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개인의 핵심역량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강명희 외, 2014). 개별대학의 각 전공 및 학과에 따라 고유의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학생이라도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이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전공계열, 성별 등의 개인변인에 따른 핵심역량의 수준과 경향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류다현 외, 2015). 그러나 그동안 개인특성이 핵심역량 수준에 미치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이 각기 다른 대학의 학생들을 연구하여 보고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김은경·서은희, 2019). 즉 개별대학별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대학의 특성이나 측정 도구의 하위요인 구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해당 대학생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소속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신입생 핵심역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학교육의 교과 및 비교과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전공계열과 성별에 따른 역량 수준을 진단하며, 하위 요소별로 강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하여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신입생의 핵심역량은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기독교대학의 핵심역량

대학생의 핵심역량이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역량으로 삶의 다양한 측면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을 뜻하며, 이는 지식 및 기술뿐이 아닌 동기, 태도, 가치관 등의 심층적인 요인도 포함된다(신혜성, 2017: 309). OECD는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프로

젝트를 통해, 핵심역량의 개념을 ‘인지적 및 비인지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하였다(OECD, 2005).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역량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으며(이수인, 2018: 98), 미래사회 요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 핵심역량 요소의 평가 및 개발을 위한 기반이 제공되었다(김미숙, 2013). 이러한 흐름과 함께, 국내에서도 대학 및 교육 기관에서 핵심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진미석 외, 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K-CESA’ 진단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대학들 또한 개별 대학의 교육목적과 맥락을 반영한 핵심역량을 정의한 후 해당역량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핵심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대중 외, 2018).

이러한 노력은 일반대학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서도 최근 역량중심 교육과 이러한 핵심역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와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자체 핵심역량을 제시함에 있어 일반적인 역량 이외 기독교적 핵심역량을 함께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에는 영적감수성, 다문화감수성, 공동체역량, 정의와 평화감수성 등이 포함된다(강영택, 2015: 23-25). 국내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한동대학교는 핵심역량을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역량, 논리적 사고와 소통역량, 창의적 문제해결역량, 다학제 융합역량, 인성과 영성의 5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187). 특히 학생들이 꼭 갖추어야 할 역량 가운데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역량으로 ‘영성 및 인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인성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함양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더불어 생활하면서 배우는 공동체 생활과 사회봉사, 담임교수/팀제도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한동대학교, 2019). 이외 국내 다수의 기독교대학에서도 ‘섬김 리더십’, ‘나눔과 배려’, ‘인성 및 영성’ 등과 같은 차별화된 교육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채플을 포함해서 기독교 관련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과교육과정으로 각종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은실·제양규, 2016: 192). 한국직업능력개발원(K-CESA)과 국내 몇몇의 사립 기독교대학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구성요소 세부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각 대학들은 소속 학교의 교육 목표에 최적화한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로 구성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역량의 하위요소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시한 대학생 핵심역량과 일부 중첩되는 공통적인 요소와, 여기에 기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봉사’, ‘나눔’, ‘섬김’ 등과 같은 역량요소들이 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와 궁극의 교육 목적에 대한 공통적인 세부 구성요소와 함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Table 1 Core Competencies and Constructs

Institution	Core Competencies
KRIVET	Communication competency, Comprehensive Thinking, Glocal Competency,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managemen Ability, Resource Information Technology
Soongsil University	Creative Competence, Convergence Competence, Community Skills, Communication Competency, Leadership Capability, Global Competency
Handong University	Global Competence, Logical Thinking Communication Skills, Multi-disciplinary Convergence Compet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Competence, Character and Spirituality
Hanshin University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Humanistic Knowledge, Leadership of Sharing, Serving, Service, Global Communication Ability, Convergence · Complex Expertise, Critical Thinking and Challenge
Hannam University	Comprehensive Thinking, Practical/Professional Competency, Glocal Competen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eative Convergence Competence, Sharing Leadership Capability

해당 대학만의 교육이념이 반영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A대학의 핵심역량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이란 교육목적 및 사명인, 세계인, 실용인, 학습인 인재 양성이란 교육인재상에 맞추어 봉사, 소통, 창의, 도전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신입생의 개인특성에 따른 핵심역량

대학생활 중 신입생 시기는 인지적 발달과 의미 있는 대학경험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대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Robert, Terenzini, & Robert, 2006: 149). 특히 대학생활의 1학년, 그 중 첫 학기를 보내는 학생들의 경우 대학의 전반적인 풍토를 익히고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될 수 있으며, 신입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신입생 연구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중요하다. 소속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4-5년 동안의 대학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역량을 증진시키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을 분석함에 있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행되었지만,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신

입생의 핵심역량에 관한 연구는 신입생 핵심역량 요인이 다양한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김민선·박수미, 2019; 방희원·조규관, 2019; 김정현 외, 2019),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한 연구(리상섭, 2014; 심태은, 이송이, 2015; 조명희·이현우, 2014),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효과(최보라, 201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수학습지원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신입생의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친 개인 배경 변인은 성별, 전공계열, 대학 입학전형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 변인의 차이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김민선·박수미(2019)의 연구에서 성실성, 소통역량, 주도성, 글로벌시민의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창의역량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이경희 외(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전공능력, 컴퓨터활용, 논리적 과학적 사고에서 남학생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선후배 및 동료 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분석이 이루어진 개별대학의 핵심역량 요인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학생이 전공지식 및 창의역량 등의 인지적 능력, 여학생은 소통능력의 비인지적 역량에서 각각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입학전형에 따른 역량 수준의 차이는 선행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선·박수미(2019)는 자기추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집단은 높은 역량 수준을 나타낸 반면, 논술우수자전형 집단은 대부분의 역량에 대해 대체로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반면, 조명희·이현우(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의 입학전형에 따른 핵심역량수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도 핵심역량의 하위요인별로 선행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이현우(2014)의 연구결과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자연공학계열 학생에 비해 사회적 능력, 미디어리터러시, 조직화전략, 초인지전략, 학습환경조성, 노력전략 등의 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심태은·이송이(2015)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비판적 및 분석적 사고, 정량적인 문제 분석, 정보기술 활용하기 역량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리상섭(2014)은 여대 신입생의 핵심역량을 도출한 후 자체분석도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인문대학 신입생들이 자연과학대학 신입생들에 비해 예술적 감성이, 예술대학 학생들에 비해서는 사회적 공감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소통역량, 종합적사고력, 주도성, 글로벌시민의식에 있어 인문계열 학생이 예체능계열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민선·박수미,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신입생의 개인 특성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많고, 이에 대학 맥락을 고려한 자체적인 핵심역량에 대한 분석이 이루

어려야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개인 특성변인을 연구변수로 설정하고,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대학의 입학전형의 분석을 통한 신입생 선발시스템의 효과 및 의의 등을 분석하기보다는, 신입생의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습지원 프로그램등을 개설하고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성별과 전공계열을 연구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A대학의 경우 핵심역량진단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교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별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학과 단위의 학습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천적 관점에서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정책적인 처방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혹은 계열별로 어떠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수도권소재 중소규모 기독교대학인 A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A대학은 교양교육과정에서 4대 핵심역량 영역별로 기초과정, 핵심과정으로 나누어 개별 교과목을 해당 역량에 매칭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봉사역량에서 영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수-학생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핵심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A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핵심역량진단에 참여한 학생이다. 핵심역량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단과대학으로 설문조사 배부를 통한 서면 전수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2019학년도 A대학의 신입생 1,456명(남학생: 615명, 여학생: 841명) 중 부실응답 및 이중 결측치를 제외한 전체 대비 64.5%인 940명에 대한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회과학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학생은 인문사회계열로, ‘바이오생태보건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학생은 이공계열로, ‘디자인예술대학’ 소속 학생은 예체능계열로 분류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 현황은 <표2>와 같다.

Table 2 Information about survey participants (N=940)

	Variable	Number	Ratio(%)
Gender	Male	355	37.7
	Female	585	62.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73	29.1
	Science and Engineering	354	37.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13	33.3
Total		940	100.0

## 2. 조사 도구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A 대학 핵심역량진단은 학생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해당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조사 도구이다. 핵심역량은 크게 ‘봉사역량’, ‘소통역량’, ‘창의역량’, ‘도전역량’ 으로 구성되며 조사내용인 하위 요소는 ‘책임감’,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외국어능력’, ‘다문화 이해’,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 ‘논리적 사고능력’, ‘분석적·비판적 능력’, ‘융합적 사고능력’, ‘자기설계능력’, ‘미래설계·실행능력’, ‘자율적 리더십’ 총 13개의 핵심역량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역량의 하위요소별 신뢰도 계수는 다음 <표3>과 같다.

Table 3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the Instrument

Core Competencies	Meanings	Sub-Competencies(Num)	Cronbach $\alpha$
Service capacity	Practicing of sharing and consideration and cooperate in community based on Christian spirit	Responsibility(5)	.784
		Sharing and Consideration(6)	.817
		Morality and Ethicality(5)	.797
Communication competency	Empathizing with other cultures with others and effective communication of one's thoughts.	foreign language Ability(6)	.913
		Multi-cultural Understanding(5)	.667
		Conflict Resolution(5)	.841
		Interpersonal Relationship(6)	.795
Creativity	Pioneering one's future and developing oneself based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of expertise	Logical Thinking(5)	.715
		Analytical/Critical Thinking(5)	.766
		Convergent Thinking(6)	.802
Challenge Competency	The convergence of one's expertise and knowledge of other areas	Self-directed Learning(6)	.812
		Future Design/Develop(6)	.870
		Autonomous Leadership(6)	.838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A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별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기준은 유의수준 0.05 수준으로 분석결과를 서술하였으며, 통계 처리를 위해서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활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4>는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나눔과 배려(M=3.65), 외국어 능력(M=2.98), 융합적 사고능력(M=3.7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M=3.52), 자율적 리더십(M=3.77) 역량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책임감(M=3.76), 도덕성 및 윤리성(M=4.00), 다문화 이해(M=3.79), 대인관계능력(M=3.84), 갈등조정능력(M=3.84), 논리적 사고능력(M=3.71), 분석적·비판적능력(M=3.58), 미래설계·실행능력(M=3.55)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은 책임감(M=3.78), 나눔과 배려(M=3.77), 외국어능력(M=2.93), 대인관계능력(M=3.92), 갈등조정능력(M=3.89), 융합적 사고능력(M=3.7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M=3.58), 자율적 리더십(M=3.83), 이공계열 대학생은 도덕성 및 윤리성(M=3.99), 예체능계열 대학생은 다문화 이해(M=3.79), 논리적 사고능력(M=3.77), 분석적·비판적 능력(M=3.60), 미래설계·실행 능력(M=3.58)에서 높은 값을 나타냈다 세 가지 전공계열 대학생은 공통적으로 ‘도덕성 및 윤리성’ 역량요소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외국어능력’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Sub-Competencies	Major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Responsi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5	0.77	3.84	0.54	3.78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72	0.60	3.71	0.55	3.71	0.58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1	0.61	3.73	0.58	3.77	0.59
	Total	3.75	0.65	3.76	0.56	3.75	0.60

Sub-Competencies	Major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Sharing and Considera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8	0.65	3.82	0.61	3.77	0.62
	Science and Engineering	3.60	0.68	3.45	0.56	3.53	0.63
	Art and Physical Education	3.71	0.64	3.58	0.62	3.61	0.63
	Total	3.65	0.66	3.62	0.62	3.63	0.64
Morality and Ethica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81	0.64	4.05	0.62	3.97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98	0.59	4.00	0.54	3.99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7	0.67	3.97	0.50	3.97	0.55
	Total	3.94	0.63	4.00	0.55	3.98	0.58
Foreign Language A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97	0.84	2.91	0.81	2.93	0.82
	Science and Engineering	2.96	0.84	2.83	0.76	2.90	0.81
	Art and Physical Education	3.03	0.98	2.82	0.83	2.88	0.88
	Total	2.98	0.87	2.85	0.81	2.90	0.83
Multi-cultural Understand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0	0.48	3.83	0.48	3.79	0.48
	Science and Engineering	3.76	0.61	3.76	0.51	3.76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1	0.57	3.78	0.46	3.79	0.49
	Total	3.76	0.57	3.79	0.48	3.78	0.52
Interpersonal Relationshi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90	0.59	3.94	0.56	3.92	0.57
	Science and Engineering	3.77	0.58	3.76	0.54	3.77	0.5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6	0.64	3.81	0.54	3.82	0.57
	Total	3.82	0.60	3.84	0.55	3.83	0.57
Conflict Resoluti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8	0.51	3.95	0.52	3.89	0.52
	Science and Engineering	3.73	0.55	3.78	0.50	3.75	0.53
	Art and Physical Education	3.91	0.56	3.79	0.47	3.82	0.50
	Total	3.78	0.55	3.84	0.50	3.82	0.52
Logical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69	0.59	3.73	0.58	3.72	0.58
	Science and Engineering	3.64	0.64	3.64	0.69	3.64	0.66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4	0.65	3.74	0.59	3.77	0.60
	Total	3.70	0.63	3.71	0.62	3.71	0.62
Analytical/Critical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4	0.59	3.60	0.52	3.58	0.54
	Science and Engineering	3.54	0.56	3.57	0.58	3.55	0.57
	Art and Physical Education	3.69	0.65	3.57	0.51	3.60	0.55
	Total	3.57	0.59	3.58	0.53	3.58	0.55
Convergent Think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7	0.61	3.72	0.54	3.74	0.56
	Science and Engineering	3.69	0.50	3.61	0.54	3.66	0.52
	Art and Physical Education	3.77	0.65	3.68	0.48	3.70	0.53
	Total	3.73	0.56	3.67	0.52	3.70	0.54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8	0.63	3.59	0.64	3.58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50	0.62	3.45	0.58	3.48	0.60
	Art and Physical Education	3.52	0.62	3.48	0.60	3.49	0.61
	Total	3.52	0.62	3.51	0.61	3.51	0.61

Sub-Competencies	Majors	Male(N=355)		Female(N=585)		Total(N=940)	
		M	SD	M	SD	M	SD
Future Design/ Develo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51	0.64	3.58	0.63	3.56	0.63
	Science and Engineering	3.52	0.63	3.52	0.64	3.52	0.63
	Art & Physical Education	3.65	0.66	3.55	0.63	3.58	0.64
	Total	3.54	0.64	3.55	0.63	3.55	0.63
Autonomous leadership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3.77	0.61	3.86	0.58	3.83	0.59
	Science and Engineering	3.73	0.60	3.75	0.62	3.75	0.61
	Art and Physical Education	3.87	0.59	3.69	0.57	3.74	0.58
	Total	3.77	0.60	3.75	0.59	3.77	0.59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핵심역량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계수 값은  $r=.17\sim.64$ 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율적 리더십’( $r=.64, p<.01$ ), ‘미래설계·실행능력’( $r=.59, p<.01$ ), ‘분석적·비판적 사고능력’과 ‘융합적 사고능력’( $r=.59, p<.01$ ), ‘대인관계능력’과 ‘갈등조정능력’( $r=.58, p<.01$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Responsibility	1												
2. Sharing and Consideration	.39***	1											
3. Morality and Ethicality	.48***	.40***	1										
4. Foreign Language Ability	.25***	.17***	.21***	1									
5. Multi-cultural Understanding	.39***	.33***	.40***	.28***	1								
6. Interpersonal Relationship	.46***	.49***	.44***	.22***	.48***	1							
7. Conflict Resolution	.47***	.54***	.47***	.22***	.45***	.58***	1						
8. Logical Thinking	.42***	.22***	.39***	.19***	.39***	.38**	.41***	1					
9. Analytical/Critical Thinking	.52***	.25***	.44***	.31***	.40***	.45***	.43***	.57***	1				
10. Convergent Thinking	.46***	.38***	.40***	.23***	.42***	.46***	.52***	.47***	.59***	1			
11. Self-directed Learning	.52***	.43***	.38***	.30**	.37***	.46***	.48***	.34***	.52***	.47***	1		
12. Future Design/Develop	.49***	.32***	.36***	.31***	.36***	.42***	.45***	.38***	.54***	.46***	.59***	1	
13. Autonomous Leadership	.55***	.41***	.48***	.25***	.44***	.55***	.56***	.45***	.53***	.52***	.59***	.64***	1

\*\*\* $p<.001$ , \*\* $p<.01$ , \* $p<.05$

## 2. 성별 및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등분산 검증(Box의  $M=731.092$ ,  $F=1.542$ ,  $p<.001$ ) 이 기각되어, Pillai의 트레이스를 검증하였다(차석빈 외, 2008).

성별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31( $F=2.28$ ,  $p<.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도덕성 및 윤리성’( $F=4.460$ ,  $p<.05$ )과 ‘외국어 능력’( $F=5.246$ ,  $p<.05$ ), 그리고 ‘융합적 사고능력’( $F=3.910$ ,  $p<.05$ )에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및 윤리성은 여학생이, 외국어 능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은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65( $F=2.40$ ,  $p<.0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하위 역량요인 중 ‘나눔과 배려’( $F=9.147$ ,  $p<.001$ ), ‘대인관계능력’( $F=5.129$ ,  $p<.05$ ), ‘갈등조정능력’( $F=4.133$ ,  $p<.05$ ), ‘논리적 사고능력’( $F=4.288$ ,  $p<.05$ )에서 전공계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에 따르면 ‘나눔과 배려’ 역량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이공계열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조정능력’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리적 사고능력’의 경우 예체능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ANOVA Tests of Between-Subjects Effects for Instruction Variables(N=940)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eta^2$
Gender	Responsibility	2.222	1	2.223	.004	.000
	Sharing and Consideration	.491	1	.491	1.255	.001
	Morality and Ethicality	1.498	1	1.498	4.460*	.005
	Foreign Language Ability	3.640	1	3.640	5.246*	.006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87	1	.187	.700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011	1	.011	.035	.000
	Conflict Resolution	.218	1	.218	.829	.001
	Logical Thinking	.095	1	.095	.246	.000
	Analytical/Critical Thinking	.011	1	.011	.035	.000
	Convergent Thinking	1.121	1	1.121	3.910*	.004
	Self-directed Learning	.151	1	.151	.401	.000
	Future Design/Develop	.022	1	.022	.054	.000
	Autonomous Leadership	.056	1	.056	.160	.000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eta^2$
Majors	Responsibility	1.656	2	.828	2.352	.005
	Sharing and Consideration	7.155	2	3.577	9.147***	.019
	Morality and Ethicality	.543	2	.271	.808	.002
	Foreign Language Ability	.318	2	.159	.229	.000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85	2	.093	.347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3.300	2	1.650	5.129**	.011
	Conflict Resolution	2.177	2	1.089	4.133*	.009
	Logical Thinking	3.309	2	1.654	4.288*	.009
	Analytical/Critical Thinking	.821	2	.410	1.333	.003
	Convergent Thinking	1.423	2	.711	2.483	.005
	Self-directed Learning	1.640	2	.820	2.183	.005
	Future Design/Develop	1.091	2	.545	1.355	.003
	Autonomous Leadership	.589	2	.294	.842	.002
Gender * Majors	Responsibility	4.220	2	2.110	5.992***	.013
	Sharing and Consideration	3.486	2	1.743	4.457*	.009
	Morality and Ethicality	2.294	2	1.147	3.316	.007
	Foreign Language Ability	.542	2	.271	.391	.001
	Multi-cultural Understanding	.955	2	.477	1.788	.004
	Interpersonal Relationship	.227	2	.113	.352	.001
	Conflict Resolution	2.598	2	1.299	4.932**	.010
	Logical Thinking	.662	2	.331	.858	.002
	Analytical/Critical Thinking	1.126	2	.563	1.828	.004
	Convergent Thinking	.066	2	.033	.115	.000
	Self-directed Learning	.140	2	.070	.187	.000
	Future Design/Develop	.925	2	.462	1.149	.002
	Autonomous Leadership	2.538	2	1.269	3.630*	.008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eta^2$
Error	Responsibility	328.835	934	.352		
	Sharing and Consideration	365.282	934	.391		
	Morality and Ethicality	313.677	934	.336		
	Foreign Language Ability	648.045	934	.694		
	Multi-cultural Understanding	249.375	934	.267		
	Interpersonal Relationship	300.484	934	.322		
	Conflict Resolution	246.013	934	.263		
	Logical Thinking	360.403	934	.386		
	Analytical/Critical Thinking	287.628	934	.308		
	Convergent Thinking	267.633	934	.287		
	Self-directed Learning	350.810	934	.376		
	Future Design/Develop	376.016	934	.403		
	Autonomous Leadership	326.528	934	.350		
Total	Responsibility	13576.383	940			
	Sharing and Consideration	12757.918	940			
	Morality and Ethicality	15189.720	940			
	Foreign Language Ability	8562.056	940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3660.560	940			
	Interpersonal Relationship	14102.223	940			
	Conflict Resolution	13934.778	940			
	Logical Thinking	13269.500	940			
	Analytical/Critical Thinking	12322.240	940			
	Convergent Thinking	13112.639	940			
	Self-directed Learning	11953.472	940			
	Future Design/Develop	12229.917	940			
	Autonomous Leadership	13680.861	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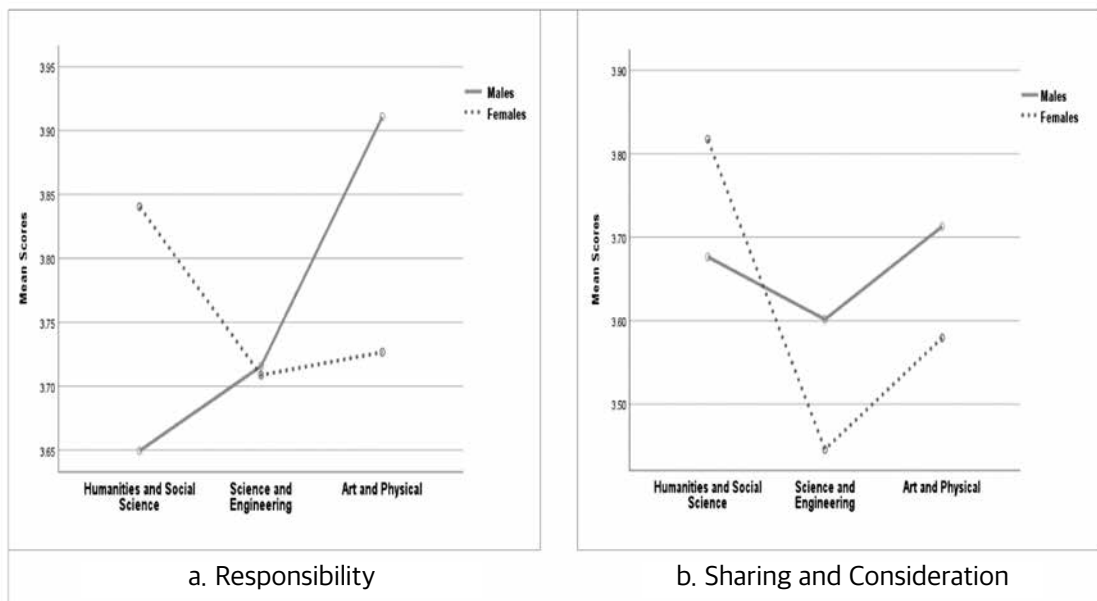
\*\*\* $p < .001$ , \*\* $p < .01$ ,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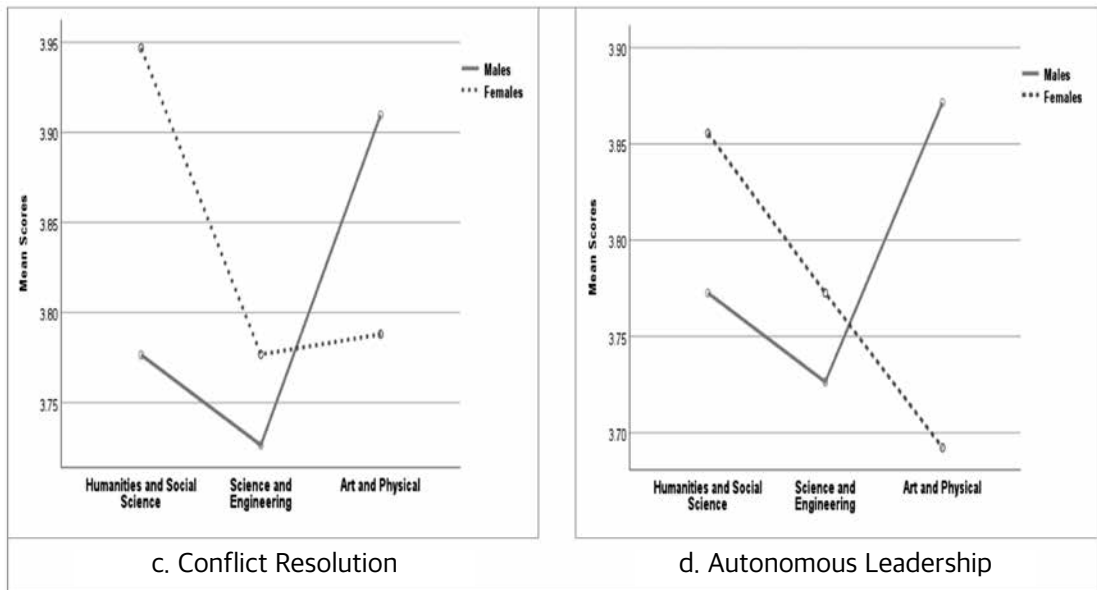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주효과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결합되었을 때의 구체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역량에 대한 성별과 전공계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성

별과 전공계열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효과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결합되었을 때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계열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Pillai의 트레이스 값이 .046( $F=1.66$ ,  $p<.01$ )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각 핵심역량별로 상호결합효과와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책임감’( $F=5.992$ ,  $p<.001$ ), ‘나눔과 배려’( $F=4.457$ ,  $p<.05$ ), ‘갈등조정능력’( $F=4.932$ ,  $p<.01$ ), ‘자율적 리더십’( $F=3.630$ ,  $p<.05$ )에서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책임감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고, 예체능계열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인문사회계열 남학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눔과 배려는 인문사회계열의 전공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이공계열, 예체능계열에서는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갈등조정능력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예체능계열의 경우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대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여학생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리더십 역량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경우 여학생이, 예체능계열의 경우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예체능계열 여학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ure 1] Differences in male and female students' competence by major levels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의 신입생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개인의 핵심역량 수준이 성별, 전공계열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변인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기독교대학 학생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이 4대 핵심역량의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성 및 윤리성이 남학생은 외국어능력, 융합적 사고능력이 더 높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도덕성 발달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난 김성희·방희정(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외국어능력의 차이는 선행연구결과(이장익·김주후, 2012; 손유미·백영은, 2017)를 지지하였지만, 융합적 사고능력의 경우 선행연구들마다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거나(김민선·박수미, 2019; 백평구, 2013),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결과(손유미·백영은, 2016)도 있었다. 핵심역량수준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 봉사역

량, 소통역량, 창의역량과 관련된 교양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요구도 조사를 통해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집단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남학생, 여학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표집된 학생의 성별 비율이 A대학 전체 신입생의 성별 비율과 다소 차이가 있기에, 연구결과를 해석 또는 일반화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는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역량 차이 분석 결과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공통적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이 이공계열 신입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리적 사고능력은 예체능계열 학생이 이공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Laird 외(2007)는 이공계열 학업이 인문사회계열 학업에 비해 대규모의 일방적 강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습과정이나 시험등에서 협업능력 을저하시키며지나 친경쟁분위기를조성 할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공계열 전공 대학생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있어 다소 부족하며(김경화, 2017), 인문사회계열 학생에 비해 다양한 집단과의 토론경험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변수연 외, 2017). 이에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에 기인하는 역량인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이 상대적으로 소속학과의 수업 방식 및 문화적 환경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논리적 사고능력은 전공계열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이장익·김주후, 2012; 리상섭, 2014)도 있으며, 본 연구와 상반되는 선행연구결과(김민선·박수미, 2019; 심태은·이송이, 2015)도 있어,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계열과 성별은 책임감,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자율적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네 가지 역량에 있어 인문사회계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예체능계열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우선, 봉사역량에 속하는 책임감, 나눔과 배려 역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인문사회계열 남학생과 예체능계열 여학생의 봉사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생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참여가 도덕성 및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김옥, 2019)를 참고하여, 인문사회계열 남학생들에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봉사 및 인성, 공동체 프로그램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경우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한안나, 2017),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A대학에서 시행 중에 있는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중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흥미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및 학습법프로그램의 양적, 질적인 측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학년의 봉사역량 증진

을 위해 교목실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영성 개발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전공별 프로그램’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경우 봉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여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변수연(2019)은 국내 4년제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학습참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적극성을 보이며, 특히 대학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여 대학이 제시한 핵심 역량을 계발하는 ‘공동체 동화’의 측면에서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긍정적인 대학 경험을 형성하기 위해 활발한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 대학풍토, 다양한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학습법 프로그램 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책임감, 나눔과 배려, 자율적 리더십 등은 비인지적 핵심역량 요인으로 교수 및 동료학생과의 많은 교류와 상호작용 등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은 전공특성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별화된 수업 방식과 졸업 후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협력 및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공 내에서 공동작업 및 협력 학습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남창우 외, 2016: 113), 교수 및 동료들과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이러한 전공별 차이점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구성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별대학의 핵심역량을 분석한 선행연구(남창우 외, 2016; 조형정·윤지영, 2014)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처럼 대학생의 핵심역량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것은 추후 학생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역량의 특성들을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갈등조정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과 같은 소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과 학습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달식 수업방식보다는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협력 및 중재를 위한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협력학습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드러낸 역량요인 중 다수는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대인관계능력, 자율적 리더십 등과 같은 비인지적인 역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입생 단계에서는 학업성취 또는 전공지식과 같은 인지적 역량보다는 구성원들과의 대인관계 및 협력, 그리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계획, 가치, 태도 등을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복합적인 능력요소인 역량을 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문제 등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포괄하는 비인지적 능력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태준, 2012: 4). 이에 핵심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양교육과정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공계열 및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비인지적 핵심역량 요인에 중점을 두어 운영방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이공계열 학생들의 전반적인 비인지적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공계열 신입생의 비인지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사회계열 남학생과 예체능계열 여학생의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시행중인 ‘찾아가는 학습법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정체성과 기독교적 역량 개발을 위해서 나눔과 배려, 도덕성 및 윤리성 등과 같은 학생의 가치관과 태도와 관련된 역량 함양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신입생들은 소속 대학의 문화를 가장 민감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반응하며, 큰 영향을 받는 점으로 보았을 때(변수연, 2016: 214), 전공 및 비교과 영역을 포함한 대학생활 전반의 기독교적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적인 태도와 신념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지적 영역 중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어능력과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시된다. 우선 외국어 능력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13개의 하위 핵심역량 요인 중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한 소통역량에 속하는 다문화 이해 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비해 역량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결과로 볼 때,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보다는 외국어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교양교육과정에서 어학관련 핵심교양 강좌를 추가하여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어학센터와 교수학습센터 등에서 기초 외국어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마일리지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여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수업 뿐만 아니라 스터디 그룹 및 학습동아리 등의 활동 등을 통해 전체적인 학생들이 하나 이상의 외국어에 집중하여 관련 자료의 독해 및 분석, 상호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여학생의 융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 영역에 대한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이나 이질적인 학문 분야들을 융합하여 주어진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적극적인 수강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제도적으로 전체 여학생들이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업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특정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분석하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함을 밝혀둔다. 또한 가용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신

입생들이 1학년 동안 경험하는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과 개인의 종교적 배경 요인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제한적이다. 선행연구(Robert, Terenzini, & Robert, 2006)에서도 신입생들의 대학 내 경험요인은 학업역량 및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기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역량에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강명희·김은희·유영란·김보경 (2014). 학습자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생애핵심역량 차이 분석. **평생학습사회**, 10(4), 61-84.
- [Kang. M. H., Kim. E. H., You. Y. R. and Kim. B. K. (2014). Comparing the Life Core Competency of Korean Undergraduates by Learners Characteristic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0(4), 61-84.]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8.
- [Kang, Y. T. (2015). Key competencies needed in a future society and tasks for a *Christian school*. *Faith & Scholarship*, 20(1), 7-38.]
- 곽은주·배상훈 (2019). 공학계열 여학생의 교수 및 교우와의 상호작용 유형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995-1022.
- [Kwak. E. J., Bae. S. H. (2019). The Pattern and Predictors of Female Students' Interaction with the Faculty and Peer in Engine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995-1022.]
- 김경화 (2017). 이공계 대학생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분석 및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5), 529-539.
- [Kim. K. H. (2017). A Study on Communication Competency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of Educational Content for Engineering Undergraduat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529-539.]
- 김대중·이희애·김수동 (2018). **대학 자체 진단 도구와 K-CESA 연계 활용 방안 연구**.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제4호, 5-23.
- [Kim. D. J., Lee. H. A and Kim. S. D. (2018). *Application Plans of Competence Using Self-Assessment Tools in Universities and K-CESA*. 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Annual Conference, 4, 5-23.]
- 김미숙 (2013).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Kim. M. S. (2013).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김민선·박수미 (2019). 신입생 핵심역량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37-259.

[Kim. M. S. and Park. S. M. (2019). Analysing of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n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Freshman at A university in Seou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6), 237-259.]

김성희·방희정 (2008). 애착, 관계적 자아 및 도덕성 간의 관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37-152.

[Kim. S. H. and Bang. H. J. (2008).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Relational Self on Moral Development in Korean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2), 137-152.]

김옥 (2019). 대학 사회봉사가 대학생의 도덕성과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생명연구**, 51, 155-178.

[Kim. W. (2019). A Study of the Effects of University Voluntary Service Program on Morality and Self-Identity for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n Life and Culture*, 51, 155-178.]

김은경·서은희 (2019). 개인변인에 따른 대학생 핵심역량 차이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803-820.

[Kim. E. K., Seo. E. H. (2019). The differences in the core competency based on personal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3), 803-820.]

김태준 (2012).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Kim. T. J. (2012).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II): 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남창우·박영희·송지희 (2016). 대학생의 계열 및 학년별 비인지적 핵심역량 차이 분석. **사고개발**, 12(3), 91-118.

[Nam. C. W., Park. Y. H. and Song. J. H. (2016).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Non-cognitive Core Competencies by Their Majors and Grades : Focusing on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ompetency.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2(3), 91-118.]

류다현·강명희·유지원 (2015). 자연계열 대학생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자본, 창의성향, 학습지향성 간의 관계 규명. **사고개발**, 11(3), 143-167.

[Ryoo. D. H., Kang. M. H. and You. J. W.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Capital,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v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1(3), 143-167.]

리상섭 (2014). 대학 신입생의 핵심 역량 진단 분석을 통해 본 단과대학별 핵심 역량 진단 비교 분석: D여대 사례. **HRD연구**, 16(4), 203-222.

[Lee. S. S. (2014). Diagnostic Studies of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Entrants: A Case Study of D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4), 203-222.]

박은숙 (2013). 기독교대학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CTL특성화 프로그램개발 - 신앙과 학문 통합 역량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6, 247-268.

[Park. E. S. (2013). A Study on Christian Universities Specialized CTL Programs for Improving Faculty-Competency - Focusing on Faith and Scholarship Integ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247-268.]

박창남·정원희 (2017).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 K 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1), 39-71.

[Park. C. N. and Chung. W. H.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1), 39-71.]

방희원·조규관 (2019). 대학생의 성취동기 수준에 따른 학습몰입, 학업적 정서조절, 학습전략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330-349.

[Bang. H. W. and Cho G. P. (2019). The Differences of Learning Flow,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and Learning Strategies according to Achievement Motivation Level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330-349.]

배상훈·윤수경 (2016). 한국대학에서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도입 관련 쟁점과 시사점. **아시아교육연구**, 17(2), 367-395.

[Bae. S. H. and Yoon. S. K. (2016). The Prospect and Barriers of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 Research to Korea's Universiti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2), 367-395.]

배상훈·한송이 (2015). 대학생의 수업 외 활동이 능동적 협동적 학습 및 대학 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3(2), 323-356.

[Bae. S. H., Han. S. I. (2015). The impact of out-of-class activities on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2), 323-356.]

백평구 (2013). 대학생 핵심역량 수준과 대학생 개인 변인의 관계 및 특성. **교양교육연구**, 7(3), 349-387.

[Baek. P. G.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nd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nd Undergraduates Individual Vari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3), 349-387.]

변수연 (2016). 이학 계열 신입생들의 캠퍼스 문화 인지가 학문적 사회적 통합과 전인적 발달에 끼치는 영향력 탐구. **한국교육학연구**, 22(4), 205-234.

[Byoun, S. Y. (2016). An Explora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 of Perceptions of Campus Culture, Academic and Social Integration, and Holistic Development of Korean STEM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2(4), 205-234.]

변수연 (2019). 대학생 성별에 따른 신입생 대학 경험의 차이 분석. **교양교육연구**, 13(3), 413-438.

[Byoun, S. Y. (2019). An Exploration on gender difference in first year experience of Korean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3(3), 413-438.]

변수연, 배상훈, 한송이 (2017). 경향점수매칭을 통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재학생의 학습참여 (student engagement) 분석 : 일반 종합대학 이공계열 및 인문사회계열 학생과 비교. **공학교육연구**, 20(3), 13-24.

[Byoun, S. Y., Bae. S. H. and Han. S. I. (2017). Student Engagement of STEM-specialized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Employing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20(3), 13-24.]

손연아, 윤지현, 맹희주(2018). 대학교 전공 계열별 교수자들의 학습 평가 목적에 대한 인식과 수업유형에 따른 평가 방법 활용 현황. **교육문화연구**, 24(3), 5-24.

[Son. Y. A., Yoon. J. H. and Maeng. H. J. (2018). The Current Status of Evaluation Method Utilization According to Instructional Types and Instructors' Perceptions about Purpose of the Learning Evaluation by University Major Field.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3), 5-24.]

손유미, 백영은 (2017). 2016-2017년 상반기 대학생들의 개인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핵심역량교육연구**, 2(2), 31-48.

[Son. Y. M. and Baek. Y. E. (2017). Analysis of core competence difference according to individual variabl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first half of 2016-2017. *The Journal of Core*

---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2), 31-48.

신혜성 (2017). L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재학생 인식 분석. **교양교육연구**, 11(6), 303-332.

[Shin. H. S. (2017).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 on extra-curricula program of L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6), 303-332.]

심태은, 이송이 (2015). 인문사회·이공계열 대학 신입생의 교양교과과정 수강현황과 학업역량 및 진로적응능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2), 343-362.

[Shim. T. E. and Lee. S. Y. (2015). The Study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Enrollment, Academic Competence, and Career Adapt-abilities of Incoming Freshmen majoring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pared to those major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12), 343-362.]

유현숙, 김태준, 이석재, 송선영 (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Yu. H. S., Kim. T.J., Lee. S. J., and Song. S. Y. (2004). *Research on the National Standards of life Competencies and Quaility Management of the Learning System(II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윤지영, 유영립 (2018). 대학생용 핵심역량 진단도구 타당화 연구: C대학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353-373.

[Yoon. J. Y and You Y. L. (2018). A Study on the test validity of the Core competencies tool.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4(6), 353-373.]

윤희정, 방담이 (2015). 전공교과와 교양교과에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요구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567-584.

[Yoon, H. J. and Bang, D. M. (2015).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educational needs for key competencies in curriculum of major subject and liberal ar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7), 567-584.]

이경희, 권혁홍, 이정례, 이성진 (2010). 공과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인식수준을 통한 공학교육 방향 연구. **공학교육연구**, 13(6), 57-71.

[Lee. K. H., Kwon. H. H., Lee. J. R. and Lee. S. J. (2010). The Study on Proper Way for Engineering University Education: Based on the Perception of Current Competencies and Expected Competencies of Engineering Freshme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3(6), 57-71.]

이장익·김주후 (2012). 대학생의 핵심역량과 학업성취도 관계성에 대한 분석연구. **직업교육연구**, 31(2), 227-246.

[Lee. J. I and Kim. J.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2), 227-246]

이미미 (2014). 호주와 미국의 역사 교육과정에 나타난 핵심역량 분석. **비교교육연구**, 24(1), 155-180.

[Lee. M. M. (2014). Analysis of Key Competencies in Australian and US History Standard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4(1), 155-180.]

이미라·김누리 (2018).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 M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4(5), 576-582.

[Lee. M. R. and Kim. N. R.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Diagnos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M University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24(5), 576-582.]

이민정·김수동 (2018).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평가연구 - 한국의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5). 759-767.

[Lee. M. J. and Kim. S. D. (2018). A Study on Evaluation for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Focusing on D University in South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759-767.]

이병식·최정윤 (2008). 다층모형을 활용한 대학생 핵심능력 개발의 영향요인 분석: 대학교육 과정과 대학 특성 변인의 영향. **한국교육**, 35(2), 243-266.

[Rhee. B. S, Choi. J. Y. (2008). Analyzing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A Multileve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5(2), 243-266.]

이수인 (2018).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35, 93-124.

[Lee. S. I. (2018).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etency-Based Education at a Christian University: A Case Study of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CTS Theological Journal*, 35, 93-124.]

이은실·제양규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역량기반교육 개발 및 운영: 한동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로. **신앙과 학문**, 21(2), 177-207.

[Rhee, E. S., & Jei, Y. G. (2016).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and its operating systems in a Christian higher education: A case of Handong Global University. *Faith & Scholarship*, 21(2), 177-207.]

이장익 (2012). 대학입학 전형제도 유형과 대학생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73-96.

[Lee, J. I. (2012).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Essential Skills and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4(2), 73-96.]

장화선 (2015).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43, 109-136.

[Chang, H. S. (2015). Competence-Based Education in light of Christian Education.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43, 109-136.]

정윤경, 오명숙, 김지현 (2008). 공대 여학생의 전공관련 심리적 특성의 탐색. **공학교육연구**, 11(4), 34-45.

[Jeong, Y. K., Oh, M. S. and Kim, J. H. (2008).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Correlates of Wome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1(4), 34-45.]

정주영 (2018). 사범계열 대학생들의 학습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연구. **교육연구논총**, 39(4), 31-55.

[Jung, J. Y. (2018). The Exploratory Study on Learning Outcomes of Teachers' College Student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4), 31-55.]

조명희, 이현우 (2014). 대학입학전형 유형에 따른 전공계열별 신입생의 학습역량 차이 분석. **진로 교육연구**, 27(3), 163-179.

[Jo, M. H. and Lee, H. W. (2014). A Study on Learning Competencies of University Freshmen based on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3), 163-179.]

조형정, 윤지영 (2016). 대학생의 자아효능감과 대인관계 역량 간 관계에서 자기관리 역량의 매개 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1), 267-290.

[Cho, H. J. and Yoon J. Y.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management competency and Gender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267-290.

진미석, 손유미, 주희정 (2011).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9(4), 461-486.

[Jin. M. S, Sohn. Y. M, Chu, H. J. (2011).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K-CESA for College Education Assess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9(4), 461-486.]

차석빈, 김홍범, 오홍철, 윤지환, 김우곤 (2008). **사례를 통해 본 다변량 분석의 이해**, 백산출판사  
[Cha. S. B., Kim. H. B., Oh. H. C., Yoon. J. H., Kim. W. G. (2008). *Understanding through Multi-variate Analysis Case*. Baeksan Publishing.]

최보라 (2018). 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인격교육**, 12(3), 157-171.

[Choi. B. R. (2018). Development of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for Core Competencies and Implementation Effect.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2(3), 157-171.]

한동대학교 (2019). 2019 **한동대학교 자체평가보고서**, 한동대학교.

[Handong University. (2019). 2019 *Handong University self-evaluation report*. Handong University]

한송이 (2016). **대학 몰입(institutional commitment)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대학 환경 특성**.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Han. So. I. (2016). *Influential factors of the students' backgrounds and campus learning environments on institutional commitment*.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University, Seoul, Korea.]

한안나 (2017).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4), 111-138.

[Han. A. N (2017).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D University.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11-138.]

황지원, 손유미, 백영은 (2017). 대학생들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분석: K-CESA 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2(1), 107-123.

[Hwang. J. W., Son. Y. M. and Baek. Y. E. (2017). Analysis of the difference of core competence according to personal background variable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K-CESA result. *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2(1), 107-123.]

허희옥, 임규연, 서정희, 김영애 (2011). **21세기 학습자 및 교수자 역량 모델링. 미래학교 지원을**

---

**위한 21세기 교수·학습 활동 개발 시리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eo, H. O., Lim, K. Y., Seo, J. H., & Kim, Y. A. (2011). *Modeling for 21<sup>st</sup> Century Learner and Teacher Competency. 21st Century Teaching-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Series I in Support of Future School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Braxton, J. M., Sullivan, A. V. S., & Johnson, R. M. Jr. (1997). Apprasing Tinto's theory of college student departure. (pp. 107-165) in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J. C. Smart. NY: Agathon Press.

Hall, R. M., & Sandler, B. R. (1982). *The classroom climate: A chilly one for women?*. Washigton, DC: Project on the Status and Education of Women,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Laird, T. F. N., Garver, A. K., & Niskodé, A. S. (2007). *Gender Gaps: Understanding Teaching Styl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Institutional Research, Kansas City, MO.

OECD (2005). *DeSeCo. Exucutive Summary*. Paris: OECD.

Posner, J. K., & Vandell, D. L. (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

Roberts, B. W., & Robins, R. W. (2004). Person-environment fit and its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72(1), 89-110.

Robert, D. R., Terenzini, P. T., & Robert, J. D. (2006). First things first: Developing Academic Competence in the First Year of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2), 149-175

#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차이 분석: A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re Competencies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Majors of University Freshmen: Focused on A-University

백상현 (고려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 신입생의 성별, 전공계열에 따른 핵심역량 수준 차이와 특성을 밝힘으로써 재학기간 중 학생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A 대학 신입생 940명을 대상으로 A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핵심역량진단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신입생의 핵심역량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고, 개인 특성에 따른 핵심역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도덕성 및 윤리성, 외국어능력, 융합적 사고능력에, 전공계열에 따라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대인관계능력, 논리적 사고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계열과 성별은 책임감, 나눔과 배려, 갈등조정능력, 자율적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여학생이 네 가지 역량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예체능계열은 남학생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대학 신입생, 핵심역량, 개인 특성